

# “못배운 한 꼭 풀고, 사회 위해 일하고파”

## 올해 첫 검정고시 시험 진행

광주 1260명·전남 754명 응시  
자녀응원 속 70대 부부도 시험  
맥지청소년 사회교육원생 참여  
재소자들 “봉사활동 하고 싶어”



지난 6일 광주 북구 광주공업고등학교에서 올해 첫 검정고시가 열린 가운데 응시자들이 시험을 치르기 전 공부를 하고 있다.

나다운 수습기자

지난 6일 오전 광주 광산구 전남공업고등학교 정문 앞. 올해 첫 검정고시가 시행되는 곳으로 오전 일찍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다. 머리 희끗한 백발의 김모(70대) 씨 부부가 책가방을 메고 ‘검정고시 기출문제집’이 적힌 책 두세 권을 손에 든 채 내린다.

김씨 부부가 교문에 들어서자 등 뒤로 “엄마·아빠 시험 잘 보고 와”라며 응원의 목소리가 들린다. 김씨 부부는 씩 웃어 보이곤 이내 교실 방향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김씨 부부는 광주 서구 한 국밥집을 운영하며 슬하의 자녀 4명을 키워냈다. 김씨는 어려운 집안 형편 탓에 초등학교만 졸업한 뒤 일찍부터 산업 전선에 뛰어들었다. 그의 아내 이씨도 마찬가지.

김씨는 “6개월은 준비 기간이 너무 짧았다”면서도 “그래도 한번에 합격하자”며 의지를 불태웠다.

이씨는 “학교를 못 나온 평생의 한을 오늘 풀겠다”며 “늦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했지만 재밌었다. 떨어지더라도 다시 도전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광주·전남에서는 정규 교육과정 미이수자들에 학력 인정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올해 첫 초·중·고졸 검정고시가 열렸다.

광주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광주는 초졸 98명, 중졸 190명, 고졸 972명 등 1260명, 전남은 초졸 70명, 중졸 136명, 고졸 548명으로 총 754명이 응시했다.

광주지역 시험장은 전남공고(초·중·고졸)와 광주공고(고졸), 소년원생이나 재소자는 광주소년원과 광주교도소다.

8시가 되자 교문에는 학생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그중엔 고등학생 정도 됐던 학생들과 중장년, 만학도들도 보였다.

고졸 검정고시를 보기 위해 온 김모(17)양은 “시험장에 들어오니 떨린다”며 “나중에 성우나 게임 그래픽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 검정고시를 발판 삼아 미래를 위해 나아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들 사이에는 함께 시험을 보러 온 학교 밖 청소년도 있었다. 중·고졸 검정고시 응시자로 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에서 100여명 학생들이 함께 시험을 보러 왔다.

이미경 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 원장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학교 밖 청소년을 응원한다”며 “이번

시험에서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길 바라고 청소년들이 꼭 필요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여파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많이 위축됐는데, 잘 이겨내길 바란다”며 “검정고시를 제2의 도약의 기회로 삼고 앞으로 더 멋진 미래를 꿈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중학교 2학년 딸을 응원하러 온 강완주(48)씨는 “큰 딸이 웹툰 관련 진로를 위해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다. 이른 나이부터 일반적인 아이들과 조금 다른 길을 걷는 아이가 걱정되기도 한다”며 “본인이 원하는 길에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숙(64)씨는 “자녀를 키우느라 학교를 못 갔다”며 “고졸 합격증을 받으면 대학 입시에도 도전할 생각”이라고 했다.

같은 시간 광주교도소도 시험준비가 한창이었다. 재소자 김모(19)씨는 “평소 자기 전 2시간 자유시간을 활용해 공부했다. 수업은 못 듣고 독학했다”며 “출소 후 수능을 준비해 약사가 돼 사회에 봉사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정선광주시교육감은 “검정고시를 기회로 삼아 이루고자 하는 꿈을 향해 나아가기를 바란다”며 “목표를 위해 열심히 달려온 모두가 자랑스롭다. 점수를 떠나 오늘을 위해 최선을 다한 만큼 보람이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나다운·박찬·윤준명 수습기자

## 광주교사노조, 학생 유권자 투표 참여 독려

광주교사노동조합(광주교사노조)가 학생 유권자들에 22대 총선거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광주교사노조는 “22대 총선 사전투표가 진행됐고 본투표는 10일 실시된다. 고3 학생 중 일부는 이번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고3학생 선거참여 인증샷 퍼레이드를 열어 이번 선거를 축제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유권자는 2006년 4월11일 이전 출생한 사람이다. 고3 학생 1/3이 이에 해당한다.

투표 참여자는 인증샷을 개인 소셜미디어에 올릴 수 있다. 인증샷은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것, 후보자의 선거벽보 선전시설물 등 사진을 배경으로 한 것도 환영해 좋다.

광주교사노조는 “젊은이들이 투표참여 인증을 대대적으로 벌이게 되면 그 자체로 축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조합원 전체에 투표 참여 계기교육을 하도록 안내할 것이며 광주 고3 유권자 모두 투표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김혜인 기자

## 고흥 해상서 낚시어선·양식장 관리선 충돌

6일 고흥 인근 해상에서 9톤급 어선과 14톤급 어장관리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7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24분께 고흥군 도양읍 시산도 남서쪽 10km 해상에서 9톤급 낚시어선 A호(승선원 17명)와 14톤급 양식장 관리선 B호(승선원 4명)가 충돌했다.

여수해경은 경비함정과 구조대를 급파해 타박상 등 통증을 호소하는 A호 승선원 3명을 119구급대에 인계했다.

이 사고로 A호는 선체 우현 선미 쪽이 부분 파손됐다.

해경은 운항 부주의로 인한 사고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송민섭 기자

## 이번 주 광주·전남 낮 최고 25도 ‘포근’

광주·전남지역 기온이 25도까지 오르며 포근한 봄날씨가 이어지겠다.

7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8일 광주·전남지역은 중국북부지방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교차 15도 내외로 벌어져 환절기 건강관리가 요구된다.

8일 아침최저기온은 9~13도, 낮최고

기온은 21~25도가 되겠다.

9일 아침최저기온은 8~12도, 낮최고기온은 18~23도로 예측됐다.

광주와 전남에는 순간풍속 55km/h(15m/s) 이상으로 강한 바람이 불겠다.

남해서부동쪽먼바다에 바람이 30~55km/h(8~15m/s)로 매우 강하게 불 전망이다.

정상이 기자

## 고법 “풍영정천 어린이 익사, 광주시·부모 책임 5대5”

### “유족 4명에 3억 3000만원 지급”

광주 풍영정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익사 사고와 관련, 하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광주시 손해배상 책임이 항소심에서도 인정됐다.

반면 배상책임은 6대4로 한 1심보다 부모 관리 소홀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해 5대5로 줄었다.

광주고법 민사3부(재판장 이창한 고법 판사)는 광주 풍영정천 익사 사망 초등생 2명 유족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7일 밝혔다.

1심에서 손해배상 청구 인정액을 1억원 감액, 유족 4명에 3억3000만원을 지급

하라는 취지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모들에게도 아이들이 위험한 곳에 놀지 않도록 보호감독 의무가 있다. 부모 과실도 사고 발생과 손해 발생에 영향을 끼쳤다”며 1심에서 판단한 광주시 손해배상 책임을 60%를 50%로 즉, 부모와 똑같은 5대5 책임으로 판단한 것.

원고들은 2021년 6월 12일 광주 풍영정천 징검다리 주변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수심이 깊은 곳에 빠져 숨진 초등생 2명 유족이다.

유족들은 풍영정천 관리주체인 광주시가 하천 안전사고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앞선 1심에서는 풍영정천 주변은 통행

로·산책로·생태 소풍 장소 등으로 활용된 만큼 광주시는 이용객들이 하천에서 물놀이할 수 있다는 점과 어린이들이 익사 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봤다.

풍영정천 징검다리 주변 수심은 20~40cm지만, 다리를 15m 정도 벗어나면 수심이 1~2m로 갑자기 깊어진다.

그럼에도 시는 깊은 수심을 안내하거나 물놀이를 금지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자체 책임 비율을 60%로 보고 원고들에게 400만원~1억8400만 원씩 4억4000만원 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송민섭 기자

## 환경단체, 광주시내 ‘과도한 가지치기’ 사례 적발

### 3월 한달간 시민참여 조사 5개 자치구 41개 사례 발견

광주 시내 곳곳에서 봄맞이 가로수 가지치기가 이뤄지는 가운데 5개 자치구 모두 과한 전정 작업을 했다는 환경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7일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일명 ‘닭발’, ‘주먹손’ 가지치기 등 수목을 해치는 과도한 가지치기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 3월 한 달간 ‘광주 가로수 가지치기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시민참여로 이뤄진 이번 조사는 광주 5개 자치구 가로수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아파트, 학교, 산책로 등 23개

지점에서 41개 과도한 가지치기 사례가 발견됐다.

자치구별로 △동구 6곳 △서구 5곳 △남구 3곳 △북구 5곳 △광산구 4곳 등이 다.

조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나무들의 큰 가지가 잘려 나간 모습이 마치 팔이 잘려 나간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다’, ‘봄이면 나무들이 불쌍하게 느껴질 지경이다’, ‘가로수는 우리에게 그늘과 쉼을 제공하고, 탄소저장능력으로 매연을 감소시키는 고마운 존재인데 과도한 전정 작업으로 그 역할이 어려워 정도다’ 등의 의견을 남겼다.

서울기술평구원에 따르면 ‘올바른 가로수 가지치기 방법’은 나무 전체의 25%이

상 제거하지 않아야 한다. 나무 머리 부분을 무차별 절단하거나 옆 가지 중 굵은 가지를 절단하는 ‘두절형 가지치기’는 금지해야 한다.

이같은 가지치기 방식은 도시 가로수 수목 형태를 파괴하고 잎의 성장을 늦춰 광합성을 저해시켜 양분의 축적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광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올바른 가지치기에 대한 시민 인식개선 활동과 함께 가로수 관리 정책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추후 ‘광주 아름다운 가로수길 콘테스트’를 개최해 도시 가로수 긍정적 가치를 알리는 활동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강주비 기자